평택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요 도심지 6개소에 경관조명을 설치키로 했다.

"빛으로 둘러싸인 6개 도심숲 구경하세요"

평택시 도심 불빛 경관조명 설치

평택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평택역 광장 등 시 주요 도심지 6개소에 12월부터 2020년 2월말까지 '도심 불빛 경관조명'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4년째 진행되는 도심 불빛 경관조명은, 빛의 아름다운 연출을 통해 연말연시 따뜻하고 포근한 도시 이미지를 표현하고 화려한 조명 등 특색있는 테마형 빛의 거리로 조성돼 시민 볼거리 제공과 함께 평택을 찾는 방문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이번 '도심 불빛 경관조명'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 수 있는 야간 경관조명과 빛조형물로 설치되며,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포토공간 등 6곳 6색의 테마별 도심숲으로 꾸며진다.

먼저 시의 주요 관문인 평택역·서부역 광장 일원에는 '겨울의 숲'을 주제로 눈 결정 게이트, 항구도시 평택을 상징하는 배 빛 조형물, 바다 빛 조형물, 파도별빛 조형물 및 이색적인 포토존, 스카이라인 등 번화가에 어울리는 도시 환경 빛 컨텐츠가 조성된다.

송탄출장소 앞 관광특구로에는 '산책의 숲'을 주제로 겨울송이 스카이라인 및 바람 빛 스카이라인, 리본 빛 스카이라인 등 풍요로운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는 테마거리가 연출된다.

현화근린공원에는 꽃의 숲을 주제로 입구에 꽃 스카이라인, 꽃 선물 게이트, 소원문구 LED박스, 소원게이트 등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가 연출될 계획이다.

끝으로 시청 앞 광장에는 평화의 숲을 주제로, 연말에는 2019, 새해에는 2020의 대형글자 조명과 수목조명, 토끼·지구·별을 표현하는 조형물, 달빛에 비쳐진 그림자 빛으로 추억을 새기며 인생샷을 찍는 이벤트 공간 등을 마련해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평택(경기)=이보헌 기자 bhlee7777@

안성시 노후 가로등 33%, LED로 교체

시가지·도로변 위주 우선 교체

안성시가 전체 2만973개의 가로등 가운데 약 33%인 6천973개를 2019년 한 해 동안 LED로 교체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올해 1차 추경에 4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행자가 많은 시가지와 도로변의 노후 가로등 위주로 먼저 교체했다.

시는나머지는 1만4천개는 생활밀집지역부터 2021년까지 모두 교체를 한다는 계획이다.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2016-183호)'에 따라, 시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안성시가 노후가로등을 LED로 교체해 예산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사진은 LED교체 가로등)

시관계자는 "앞으로 2년 동안 안성시의 LED 교체사업이 마무리 되면, 약 65%의 소모 전력이 감소하여 해마다 14억 1천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성(경기)=이보헌 기자

오늘의 날씨

해뜸 / 07:36 | 해짐 / 17:14

12월 11일 (水)

음력 : 11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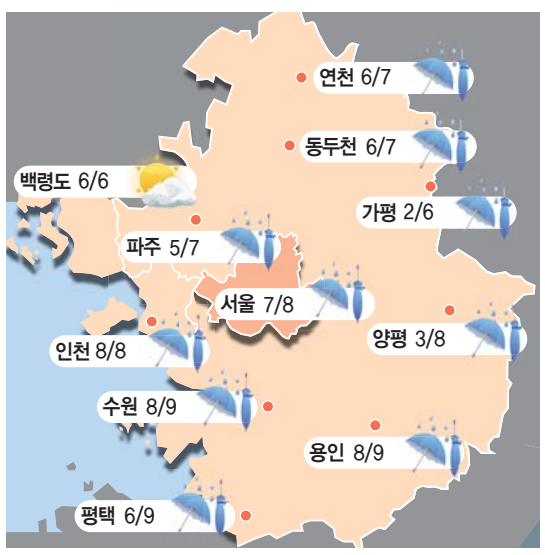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7 ~ 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한국전기연구원 광주 분원 완공 눈앞

"D3 선도지역 조성 핵심역할 수행"

〈저탄소·분산전력·디지털〉

건립사업 성공기원 상량식 개최 "시대적 요청 부응하는 중대 사업"

호남권 전력산업 발전을 이끌 한국전기연구원(KERI) 광주 분원이 완공을 눈앞에 뒀다.

한국전기연구원은 10일 광주 남구 압촌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광주 분원 건립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는 상량식(上樑式)을 열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전기 전문 연구기관으로 창원에 본원, 안산과 의왕 등 수도권에 2개 분원을 두고 있다.

광주 분원은 건립비와 시설비 등 742억원을 투입해 도시첨단산단 9만 9000여㎡에 들어서 내년 6월 개원 예정이다.

광주시 핵심 산업인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산업 육성을 위한 분산전력·전력변환 시스템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험 인증 등을 한다.

광주 분원은 도시첨단산단 일대를 저탄소(Decarbonization), 분산전력(Decentralization), 디지털(Digitalization) 등 'D3' 선도 지역으로 조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전력 기기 국제공인 시험인증 기관인 KERI의 시험 설비도 들어선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시험 인프라 구축으로 인근 에너지 밸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인증 시험을 받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KERI는 기대했다.

최규하 KERI 원장은 "광주 분원 설립은 창원 본원, 수도권 2개 분원과 함께 삼각 축을 통해 전기·에너지 분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국전력 등 인근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호남이 전력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인천항만公, 中企 해외진출 마중물 부었다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1:1 수출상담·노하우 제공·컨설팅 수출상담액 실적 7000만 달러 달해

인천항만공사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2019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롯데홈쇼핑과 공동주관하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기업 73개사 수출상담액 7000만달러(약 835억)의 실적을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LA에서 열린 코리아 브랜드 엑스포 사진

'2019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는 12월 2일 사전시장설명회를 시작으로 3~4까지 양일간 미국 로스엔젤레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박람회로, 협력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해 IPA가 2018년부터 롯데홈쇼핑·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손잡고 추진하는 해외특화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자, 4차산업, 스타트업의 본고장에서 국내 우수 생활 소비재 상품과 K-뷰티를 대표하는 화장품 등 유망 중소기업 41개사, 스타트업 32개사 및 현지 바이어와 1대1 수출상담, 상품 입점 노하우 제공, 제품 현지화 컨설팅 등 해외유통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인천지역에서는 '피크닉파트너스', '아이앤이' 등 화장품 및 아웃도어용품 중소기업 7개사가 참여했으며, IPA는 B2B 수출상담회에 참석하여 인천항 홍보와 협력기업의 상담부스·바이어 매칭을 지원하고 박람회 전시물품 운송 및 물품 현장배치 등 참가업체의 물류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수출상담과 더불어 LA 브랜드엑스포 홍보대사 가수 소유 팬 사인회, 한류 메이크업 시연회 등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행사가 함께 구성되어 현지 방문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행사결과 7000만달러(약 835억)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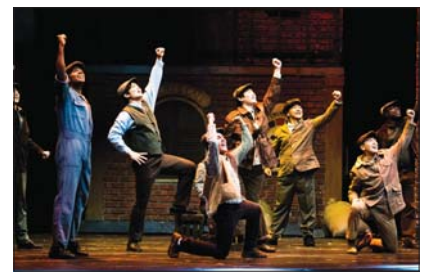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그라시아스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

13일부터 사흘간… 총 5회 진행

그라시아스합창단의 공연 '2019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펼쳐진다. 13일은 오후 7시 30분 한 차례, 14일과 15일은 오후 3시 30분과 저녁 7시 두 차례씩 총 5회 공연이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2천 년 전 '예수' 탄생으로 집약되는 인간에 대한 신의 조건 없는 사랑을 그린 오페라로 막을 연다. 2막에서는 가난하지만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델라와 짐, 아버지와 멀어진 아이들이 사랑을 깨닫고 가까워지는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뮤지컬로 표현한다. 또 3막에서는 음악의 거장들이 표현한 사랑과 크리스마스의 행복을 합창으로 느낄 수 있다. 그라시아스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헨델의 오라토리오와 우리에게 친숙한 캐롤을 선사한다. 칸타타 공연 기획과 구성을 그라시아스합창단이 직접 맡아 공연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 프로그램 전반에 묻어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라시아스합창단이 크리스마스칸타타 2막에서 가족간의 사랑을 그린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다. /그라시아스합창단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지난 9월부터 한 달 간 28개 도시를 순회하며 크리스마스 칸타타 북미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

/최인락 기자 remark@

광주시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건강보험 적용 기회를 모두 소진한 광주 난임 부부들이 추가로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게 됐다.

경제적 이유로 출산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난임 부부들의 청원에 광주시는 3억여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체외수정(신선 배아 7회·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5회) 등 최대 17회까지 지원되는 건강보험 적용 기회를 모두 소진한 부부들에게 난임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1억9천만원을 긴급 편성했다. 회당 지원비를 250만원으로 산정하면 모두 76차례 시술을 할 수 있는 금액이다.

시는 또 1억2300만원을 지원해 임신 전후 검사, 한방약제비 등 한방 치료비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김태수 기자